

광양시 '인간·자연 공존' 스마트그린 도시 조성 박차

5개지구 275만 6000㎡ 개발
1만 4850 가구 3만 7000명 수용
스마트 기능 접목 쾌적한 정주기반
경제 활성화·인구늘리기 달성



광양시가 30만 거주 자족도시 건설을 위해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시가 개발중인 택지.

광양시가 인간과 자연이 공존하는 스마트 그린도시 조성을 목표로 도시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광양시는 와우, 광영·의암, 성황·도이, 인서, 성황·도이2 등 5개 지구 275만 6000㎡ 면적에 4942억원을 투입해 개발을 추진하고 있다. 이곳이 개발되면 1만4850가구 3만7000여 명의 수용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중마동 와우마을 일원의 와우지구 도시개발사업은 63만 6000㎡ 면적에 1036억 원을 투입해 3620가구 9777명을 수용하는 사업지구로, 2020년 9월 도시개발사업을 완료하고 체비지 138필지를 일괄 매각해 한지 청산을 추진하고 있다. 공동주택은 3개 소로 LH 행복주택 830가구는 건축을 완료하고 2021년 8월부터 입주 중이다.

동문디스트리파트 1114가구는 2023년 1월 입주를 목표로 골조 공사를 추진 중이고 중흥S클래스아파트 902가구는 2024년 10월 준공을 목표로 기초공사를 추진하고 있다.

광영동, 옥곡면 의암마을 일원의 광영·의암지구 도시개발사업은 54만 6000㎡ 면적에 1089억원을 투입해 2404가구 6490명을 수용하는 사업지구

다. 2021년 4월 도시개발사업을 완료하고 체비지 170필지 중 167필지(98%)를 매각해 한지 청산을 추진 중이다.

공동주택은 2개 소로 덕진봄프리미엄2아파트 924가구는 건축을 완료하고 2021년 2월부터 입주 중이며 영무에다움아파트는 공동주택 건립을 위해 인허가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성황·도이지구 도시개발사업은 65만 4000㎡ 면적에 1239억 원을 투입해 2732가구 7104명을 수용하는 사업지구다. 체비지 93필지는 일괄 매각하고 택지조성공사를 마무리 중이다.

공동주택은 3개 소로 푸르지오더퍼스트아파트 1140가구는 건축을 완료하고 2021년 10월부터 입주 중이며, 센트럴자이아파트 704가구는 2022년 8월 입주를 목표로 마감 공사를 추진 중이다. 더샵프리모성황아파트 486가구는 2024년 4월 준공을 목표로 가설공사를 추진하고 있다.

주요 공공시설은 4개 소로 골약동주민센터와 골약파출소는 개청해 운영 중이고, 골약건강생활지원센터는 건축을 완료하고 개청을 준비하고 있으며 골약중학교는 올해 하반기 개교를 목표로 건축 공사를 추진하고 있다.

광양을 인서리, 인동리 일원의 인서지구 도시개발사업은 62만 5000㎡ 면적에 1082억 원을 투입해 4256가구 9840명을 수용할 계획이다.

도이동 일원의 성황·도이2지구 도시개발사업은 29만 3000㎡ 면적에 496억 원을 들여 1838가구 4429명을 수용할 계획이다. 조사설계용역을 추진해 도시개발사업 구역 지정과 개발계획 승인 신청을 준비하고 있으며, 행정절차 이행 등을 마무리해 공사가 시작되도록 서두르고 있다.

인서지구와 성황·도이2지구 도시개발사업은 지역민에게 녹색 친화적 생활환경을 제공하도록 정부의 한국판 뉴딜 정책을 접목한 스마트그린 도시개발사업으로 추진코자 사업계획을 수립 중이다. 시는 스마트 기능을 도시개발사업에 도입해 지역민에게 편리하고 쾌적한 정주기반이 제공되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외에도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과 도시경관 향상을 위해 와우지구, 광영·의암지구, 성황·도이2 지구는 총사업비 275억 원을 들여 배전선로 지중화 사업을 완료했다. 앞으로 인서지구와 성황·도이2 지구도 배전선로 지중화 사업을 반영해 명품택지 조성에 나설 예정이다.

정현복 광양시장은 "30만 자족도시를 건설하기 위해 속도감 있게 도시개발사업을 추진함으로써 품격 있는 정주기반 확충, 지역경제 활성화, 인구 늘리기 등 세 가지 목표를 달성하고자 한다"면서 "지속 가능한 도시 발전과 시민 삶의 질 향상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광양=김대수 기자 kds@kwangju.co.kr

보성군, 한우·젓소·돼지 등 6만여 마리 구제역 일제접종

보성군이 14일부터 4월15일까지 5주간 올해 상반기 구제역 일제접종을 실시한다.

이 기간 한우와 젓소 2만7000여 마리를 비롯한 우제류(소, 돼지, 염소, 사슴) 6만여 마리가 구제역 예방 접종을 하게 된다.

보성군은 매일 실시하는 수시접종과 1년에 두 차례 일제접종을 실시하고 있으며, 1934년 관측 이래 단 한 번도 구제역이 발생하지 않은 청정지역을 유지하고 있다.

구제역 예방접종은 가축 소유자가 직접 접종하는 자가 접종으로 실시되며, 자가 접종이 어려운 소규모 농가에 대해 공수의사 6명이 예방접종 시술을 지원한다.

이번 일제접종에는 3억8000여만원의 사업비가 투입되며, 구제역 백신과 백신접종 스트레스 완화제 등 약품비가 100% 지원된다.

보성축협 및 한우협회 등 축산단체들도 SNS 및 문자를 보내 회원 농가의 일제 접종 홍보에 동참하고 있다.

보성군 관계자는 "예방접종과 차단방역에 모든 역량을 기울여, 구제역 및 아프리카돼지열병과 같은 재난형 가축전염병이 발발할 틈이 없도록 철동 방역체계를 구축하겠다"면서 "축산 농가에서는 구제역 예방접종과 농장 및 축사 소독을 철저히 하여 가축전염병 청정지역의 명성을 유지해 달라"고 협조를 당부했다.

/보성=김용백 기자 kyb@kwangju.co.kr

구례군, 10억원 투입 전기차 57대 민간 보급

구례군이 10억원을 들여 전기승용차 31대, 전기화물차 26대 등 총 57대를 민간에 보급할 예정이다.

구례군에 따르면 구매 지원신청서 접수일 기준 3개월 이상 연속해 구례군에 주소를 둔 군민과 구례군에 소재한 법인, 기관은 누구나 보조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

전기 승용차 31대는 취약계층 및 다자녀 가정 등에 3대, 택시 3대, 법인·기관에 9대를 지원한다. 나머지 16대는 일반 대상자에게 지원한다.

승용차 구매 보조금은 보급 차종에 따라 최소 530만 원에서 최대 1450만 원까지 차등 지원된다. 전기 화물차 26대는 취약계층 및 다자녀 가정 등에 2대, 법인·기관에 5대, 중소기업 생산제품 2대를 지원하고, 17대는 일반 대상자에게 지원한다.

화물차 구매 보조금은 보급 차종에 따라 최소 921만 원에서 최대 2533만 원까지 차등 지원된다. 군은 지난 7일부터 자동차 판매점을 통해 구매 계약하고 판매점으로부터 전기자동차 구매 보조금 시스템을 통해 신청을 받고 있다. 보조금 지원은 자동차 출고·등록순으로 대상자를 선정한다.

군은 전기자동차 급속충전기 13개소 20기, 완속충전기 21개소 48기 설치했으며 전기차 증가에 따라 충전시설을 확충할 방침이다.

/구례=이진택 기자 lit@kwangju.co.kr

여수시립미술관 예술마루 인근 건립 선호

기본계획 용역 최종보고회

두 차례 시민 선호도 조사

면적 6700㎡ 규모 건립 추진

여수시가 추진 중인 시립미술관 건립 위치는 망마공원과 가까운 예술마루 인근에 대한 선호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여수시는 시청 상황실에서 '여수시립미술관 건립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용역' 최종보고회를 개최하고 건립 위치 등을 논의했다.

최종 보고회는 지난해 3월부터 진행된 용역의 연구 결과를 토대로 관련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마련됐다.

용역사인 (주)지식산업연구원은 ▲건립 대상지 ▲전시 콘텐츠 ▲운영계획 ▲건축 기본계획 ▲경제적 타당성 등 분야별 연구 결과를 제시했다.

이어 관련 법규검토, 효율성 있는 공간구성 등 참석 위원들의 의견이 이어졌다.

건립 대상지는 지난해 7월과 올해 2월 두

차례에 걸쳐 시민 설문조사를 실시한 바 있다. 조사 결과 망마공원(웅천 예술마루 인근)에 대한 선호도가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시는 용역 결과와 설문조사를 바탕으로 지하 1층, 지상 3층, 연면적 6700㎡ 규모에 4개의 전시실과 수장고, 미술북카페 등을 갖춘 복합문화형 미술관으로 건립 기본계획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건립 대상지(망마공원) 인근에 있는 예술마루를 비롯해 건립 예정인 여수시립박물관과도 연계한 문화지구를 형성해갈 계획이다.

시는 여수시립미술관 건립 기본계획이 수립되면 문체부 사전평가, 행안부 지방재정부 자심사 등 사전절차를 밟는다.

권오봉 여수시장은 "미술관 건립으로 우리 시민들의 삶의 질과 문화관광 도시로서의 위상을 높일 수 있을 것"이라며 "누구나 편하고 쉽게 방문할 수 있도록 다양한 문화서비스를 개발해 일상과 예술이 공존하는 문화거점으로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말했다.

/여수=김청화 기자 chkim@kwangju.co.kr



송귀군(왼쪽 두번째) 고흥군수가 거금도 일대 미역 채취 해역 가공공장을 방문해 어민들의 이야기를 듣고 있다. <고흥군 제공>

고흥 청정미역 생산량 어장 축소로 20% 감소

kg당 125원...전년 대비 10원 ↑

고흥 청정해역에서 양식중인 고흥산 미역 생산량이 어장면적 축소로 전년 대비 20% 줄어든 것으로 예상된다.

고흥군에 따르면 올해 미역 작황은 미역성장에 적합한 해황유지로 성장은 대체로 양호하다. 하지만 어장면적 축소로 작년 대비 생산량이 20% 정도 감소한 10만t이 생산될 것으로 전망된다.

생산량이 줄어들면서 평균단가는 kg당 125원으로

전년에 비해 10원이 인상된 가격으로 거래되고 있다.

고흥미역은 전국 식품·가공량의 42%를 차지하는 주산지로서 작년 기준 148억원의 소득을 올린 효과 품종 중의 하나로 4월초까지는 채취를 마무리할 예정이다. 고흥군은 미역을 이용한 염장미역, 건미역 등의 제품을 생산하기 위해 그동안 가동을 멈추었던 20개소의 미역 가공 공장에서 채취된 미역을 자숙 등의 작업을 하느라 일손이 바빠지고 있다. /고흥=주각중 기자 gju@kwangju.co.kr

그린궁 GREEN GOONG PRIME EVER 120 프라임에버 120

다시 맞이하는
빛나는 아름다운 여성의
건강한 봄날을 위하여!



그린궁프라임에버120은 소중한 여성의 피부 건강과 저하된 면역력을 증진시켜 주며 장 건강 그리고 뼈 건강에도 도움을 주어 활력있는 여성의 아름다운 건강을 위한 여성 건강기능식품입니다.

소비자상담실 080-234-6588

그린알로에 건강기능식품은 단 1%도 중국산 원료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